

## 2018년 무술년 삼재기도 범띠, 개띠, 말띠(날삼재 庚戌午)

- 기도비 : 1인 3만원
- 준비물 : 쌀 3되 3흙  
          묵은 속옷 1벌  
          100원 동전(나이 수만큼)
- 풀이하는 날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저녁시간 7~9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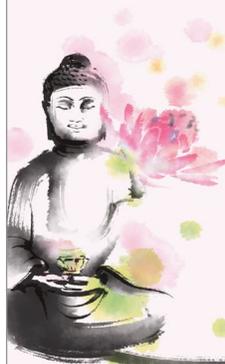
寅            戌            午



## 2018년도(불기 2562년) 무술년 '달력시주' 접수받습니다

사업체명 새겨 드립니다

###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  
달력시주 공덕은  
일년 365일  
신도님들과  
함께합니다.

## | 무술년 2018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서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8. 1 | Vol. 277 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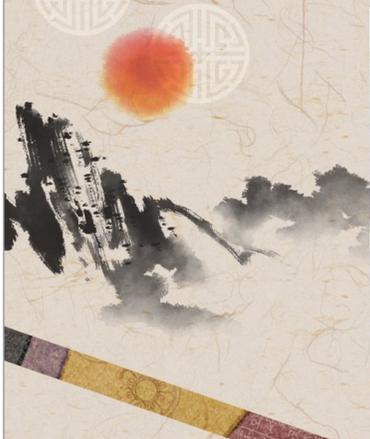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 삼신불 좌우 협시 문수 · 보현보살 봉안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신불 점안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불단의 마지막 불사로 좌우 협시보살로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실천제일 보현보살상을 봉안합니다. 삼신불에 이어 보살상까지 봉안하면 법왕사 대적광전은 완벽한 도량으로 거듭나며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문수보살



▲ 보현보살

# 대적광전 신장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장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장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3층 만불전 신장탱화



▲ 4층 대적광전 신장단



Vol. 277호



- 04 깨침의 향기**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 낳는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신년사**
- 08 비슬산방**  
새해 아침에 바라는 마음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 본원스님
- 14 부처님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4)**  
위빳시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8 명찰 순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 22 화보**  
대적광전 삼신불 점안법회
- 24 해오름 요양원 – 2017년을 보내면서**  
분명 새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27 법왕사소식**
- 31 법왕사게시판**
- 34 해오름소식**
- 35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1월 01일 발행 | 통권 277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 낳는다(1)

원공당 정무 대종사



태교에 관한 제 글을 읽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주위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태교법을 들려줄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간혹 본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태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태교는 하지 않고 오로지 참선만 했는데 그 덕분인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뛰어나고 과외 한 번 안 시키는데도 전교 1등을 한다는 불자의 이야기, 그리고 임신 중 자주 절에 가서 목탁소리를 들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였는데 아이가 유별나게 신심이 지극하고 총명하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면 뇌파가 안정되어, 우리의 심신이 활기차고 행복한 알파 상태가 됩니다. 또한 알파 상태가 되면 정신통일이 되고 집중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증대됩니다. 목탁소리 또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보다 태교에 더 좋다고 합니다. 참선과 염불을 통한 임신부의 심신 안정이 가장 좋은 태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산 때까지 ‘육바라밀 태교법’과 ‘일과 수행’을 권하면서 행복한 출산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의 소원은 건강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번영의 주춧돌입니다. 실로 개인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평소 부모가 자연건강법 6대 법칙을 실천하고, 바른 태교를 통해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녹이고 태아를 성장시키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럴 때 ‘출산은 새로운 붓다를 탄생시키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성스러운 불사(佛事)인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자녀는 건강한 부모에게 나오기 마련이니 출산도 건강한 20대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젊을수록 좋지만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30대, 심지어 40대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만산(晩産)일 경우 선천성 질병과 난산의 우려가 있기는 해도 개인차가 큼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35세가 넘었더라도 신체적인 나이는 훨씬 젊을 수도 있고, 참선·염불 등의 명상이나 요가·라마즈 호흡법 등으로 40이 넘어서도 자연분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산이라 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노심초사는 게 병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난산이라 해도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는 예는 1%도 안됩니다. 나이가 산모를 큰 병자 취급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분만이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거꾸로 들

어선 아이도 기도로써 제자리 잡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저 임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태교에 임하고, 건강을 살피면서 평소 행복한 출산을 마음속으로 그리면, 실제로 별 탈 없이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심 한복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소음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인스턴트식품에 이르기까지 임신부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체의 밸런스가 깨어져 질병에 취약한 데다 방사선, 전자파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약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암제,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호르몬 합성항체 등의 복용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수시로 받는 초음파 검사도 태아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음파 검사가 영국보다 6배나 잦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기계는 전 유럽을 합친 것들 능가하고, 유도 촉진제와 제왕절개 시술을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100%라고 하더군요.<계속>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 법왕사 모든 서원 원만성취하길

심경스님 / 중심문도회 회주



매년 연말이면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혼미한 가운데 맞이한 연말연시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고 그 잣더미 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번영이 이제 동족의 잔인한 핵무기 위협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은 자신만의 이익에 매몰되어 우리 민족의 운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서로 막말과 흉포한 폭력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법왕사는 '세계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대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창의 부처님마을 부지도 5천여 평을 마련하여 환경조성 공사를 마치고 대작불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는 장엄한 삼신불을 봉안하여 점안식까지 마쳤으니 그야말로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경사는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신심과 주지 실상스님의 굳은 대원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삼계에 두루하신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에 힘입은 것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목표를 성취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주지스님의 대원과 불자님들의 불심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합쳐지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롭게 밝아 온 2018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술년 한 해에도 법왕사 범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처님의 진리로 세상을 깨우치자

주호영 / 국회의원·수성구을



법왕사 불자 여러분,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각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공정한 사회, 신뢰의 국가는 행복한 삶의 근간이자 기둥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積弊)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탐(貪)·진(瞋)·치(癡) 삼독(三毒)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

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결국 또 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적폐청산이란 명목 하에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기, 복핵문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 등 현안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냉정함과 철저한 반성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더구나 적폐와 같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 모두가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만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적폐는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教化)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한다면 분명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법왕사 불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진리(眞理)가 세상을 밝혀줄 등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새해 아침에 바라는 마음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각 개인은 물론 모든 가정과 나라가 부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소원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새로운 설계를 세워야겠습니다.

중생살이는 각자의 모습과 성품이 다르고 업연(業緣)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듯이 소원하는 바도 각자 다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랄 것이고, 가족이 편안하길 바라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쾌차하기를 바라며,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 빨리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유능제강(柔能制剛)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더욱 더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전을 읽으면서 강한 정신력과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장애도 이겨 나

갈 수 있는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도업과 소원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심이 굳은 불자라면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주적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내외 현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참괴감(懺愧感)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는 어지럽고 곤혹스런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새로 우리 자신을 정화한다는 각오로 새 출발의 원을 세워야겠습니다.

밝은 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다가오는 새 해에,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행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정법이 펼쳐지는 깨달음의 실천 보살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의 첫걸음으로 고난에 찬 어려운 이들에게 보시의 분배철학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생의 의욕을 북돋아 자비심으로 서민들 마음에 용기를 주고 국가와 사회를 살리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일깨워 주는 보살행은 모든 사람을 화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위의 따가운 거부반응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불교가 점유

하는 정신적 이미지를 살펴보고 국민 도의의 원천이 되는 보살도의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부터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불교시대의 부처님 말씀대로 교리를 닦아 실천하고 자비 보살행을 실천해야 우리 불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항상 마음 닦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르침도 이 마음 하나 닦는데 귀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도 바로 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절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 순수한 신앙심에 결부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처한 분열과 폐허의 상황에서도 실의에 빠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서 견성 성불할 수도 있고 중생제도의 길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 원력과 정신으로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자리로 바꾸는데 노력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신심을 가다듬어 금강 같은 신앙심으로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뜻깊은 해가 되기를 부처님 전에 참회 기도정진하여 불보살의 가피를 얻도록 하십시오.

##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보리 씨앗을 뿌린 땅에서 싹을 수확하며, 모내기한 논에서 보리가 자랄 수는 없는 일, 마늘을 파종했는데 양파가 나오고, 양파를 심은 곳에 마늘이 나올 수 없는, 이 이치에 견주어 보라. 그림자 형상을 좇고 메아리 소리를 따르듯,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즐거운 수단쯤으로 여기며, 심어놓은 그릇된 행위의 과보는 반드시 그 몸을 따른다. 설령 해가 달이 되어 밤을 비추고, 달이 해가 되어 낮을 비추며, 밤하늘 별빛이 사라질지라도, 인간 선악이 지은 행위에 상응한 죄와 벌의 대가 치름을 가리키는 연기법, 카르마(業) 법칙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거나 고칠 수 없는 법이다.

인도 순례 중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은 단연 마하보디대탑이다. 동인도 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대각을 이룬 부처님의 위엄을 기리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동편에 불교도였던 아쇼카왕이 세운 내부구조 개방형 사원 양식이다. 이 대탑에는 서글프도록 참담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

이슬람 군대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은 어디고 살상과 약탈, 방화로 생지옥이었다. 특히 불교는 우상숭배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흉물로 간주된 나머지 나란타와 마찬가지로

로 승려들은 살해되고 사원은 불타며 유적은 모조리 파괴된 채 폐허의 잔해만 남아 순례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한 없이 아프게 한다.

정복 군대는 대탑을 보고서, 그 위용에 놀라는 한편, 없애버리고자 방화를 하고 파괴도 시도했지만 탑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대리석을 겹으로 감싸는 정교한 기법과 수직으로 치솟은 장대한 석조건축물(높이 56m로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이라 달리 훼손할 방법이 없었는지 강제 노동력을 동원하여 땅 속에 그대로 묻어버린다. 탑 높이

를 덮어버린 흙에 산을 만들어 보이지 않도록 매장하듯, 매몰시켜 버린 것이다.

마하보디대탑은 인위적으로 만든 흙산에 묻힌 채, 수백년의 시간이 흐른 19세기 중반, 소 치는 한 목동의 발끝에 금속성 피뢰침이 걸리며 비로소 세상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조사 결과, 700여 년 전 이슬람 침입 때 묻힌 불탑인 것이 밝혀진 것이다. 모진 수난의 긴 시간을 인고(忍苦) 끝에 잠에서 깨어나듯 장엄하고 수려하며 탑신부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 장식으로 더욱 빛나는 보디대탑은 비로소 그 고결한 자태를 드러내며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만행을 일삼은 정복 군대의 부산물격인 문명 전파나 문화교류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한 점을 들어 정복 군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은 양식을 저버린 몰지각하고 경망한 짓이려니와 그 같이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 인식은 자칫 전체 다수를 무지와 최악의 터널로 내모는 또 다른 형태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 일주를 했다는 무전 여행가 김찬삼 교수는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다른 민족과 충돌하거나 피 흘린 적 없는 불교이기에 더욱 불교답다”고 하였다.

인류사 일찍이 없었던 대사건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루고서 다음 장

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세계 지식 학계에선 해묵은 ‘문명권의 충돌’이라는 진단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 ‘자스민혁명’은 변화의 열망

7세기 이슬람의 서유럽 해적 노략질과 정복군 침략(7~12세기)에 맞서 똑 같은 방식, 성전의 이름으로 싸운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1096~1291) 이후, 십자가를 앞세운 스페인, 포르투갈의 중남미 정벌 - 중세 암흑기 악명을 떨친 종교재판 -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노예시장과 아시아 무력 식민지 기독교 선교사업에 이어 근세에 이르러 중동전 - 베이루트·키프로스 사태 - 레마논 사태 - 걸프전 - 9·11 테러 - 이라크 전에 이르기까지 온통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린 피로 얼룩진 역사이다.

다 알다시피 중동전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3차에 걸쳐, 신생 독립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연맹(이슬람 동맹국) 간에 일어난 전쟁으로써, 결과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유대인(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친서방국가와 아랍국가를 지지하는 반미 성향의 사회주의 국가 양대 진영으로 재편, <성서> 시대 이후, 정착민으로 살던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인을 난민으로 내몰며 아랍권 대(對) 이스라엘의 깊어만 가는 앙금의 골과 분쟁은

한때 미국의 중재 하에 이루어진 양측 협상으로 평온한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회교 원리주의의 폭력 세력에 의해 사다트가 피살되고, 그 뒤 95년에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라빈이 피살되는 가운데,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짙은 전운이 드리워지며 서안·가자 지구의 교전 상황과 긴장은 지속적인 대치 국면이고, 반미를 외치는 이란의 회교 혁명은 무수한 인명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면, 뒤이어 이란의 수니파와 이라크의 시아파 간에 불붙은 종파전쟁이 있었고, 다시 쿠웨이트를 침략한 이라크군이 쿠르드족을 학살하면서 인종 청소라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중동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힘과 동시에, 오랜 1인 지배 독재와 인권 탄압, 성적 차별과 학대, 굴종을 강요하는 인습, 관습의 굴레의 봉건적 폐쇄된 사회제도 구조 속에 변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 ‘자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리비아 - 예멘 - 모로코 - 이집트 - 시리아 등 아랍권은 사나운 칼바람에 휩싸이며,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폭력이 일상화됐음을 외신을 통해 보고 들은 탓에 이제는 ‘뭐 그러러니……’ 여길 만큼 눈과 귀에 익숙해져 있다.

## 종교 전쟁은 인류 파멸의 시작

위대한 알라신의 이름으로, <코란>의 전파를 위해 휘두른 칼날이 곧 성전임을 주장한,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 학교, 경찰서, 병

원 중환자실, 장례행렬이며 심지어는 지극지성으로 섬기고 유일신을 찬양하는 사원까지 자폭테러의 대상이 돼버리고만 것은 이 율배반적 역사의 아이러니의 극치이기도 하려니와, 숙업(宿業)으로 말미암아 반전된 상황이 가지는 배경의 의미가 뜻하는 악순환의 답습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안전지대라곤 없을 만큼 무차별, 무자비한 인면수심의 테러는 어린 아이들마저 성전과 순교의 전사로 세뇌·무장시켜 허리춤에 폭탄을 동여매 옷속에 감추어, 미리 지목된 제거 대상이 있는 곳에서 ‘너 죽고 나 죽어’, ‘너는 지옥행, 나는 알라신이 영접하는 천국행’이라는 한결 같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감행하는 자살폭탄의 순교자가 날마다 생겨나는 사라센제국의 영상화면을 볼 때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과거 신의 이름으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 죄 없는 사람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 죄악을 일삼은 유일신앙의 종교가 끝내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란 우려 섞인 소리가 더 이상 빈 말로 들리지 않는다.

보리 씨앗을 뿌린 땅에서 쌀을 수확하며, 모내기한 논에서 보리가 자랄 수는 없는 일, 마늘을 파종했는데 양파가 나오고, 양파를 심은 곳에 마늘이 나올 수 없는, 이 이치에 견주어 보라.

그림자 형상을 좇고 메아리 소리를 따르

듯,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즐거운 수단쯤으로 여기며, 심어놓은 그릇된 행위의 과보는 반드시 그 몸을 따른다. 설령 해가 달이 되어 밤을 비추고, 달이 해가 되어 낮을 비추며, 밤하늘 별빛이 사라질지라도, 인간 선악이 지은 행위에 상응한 죄와 벌의 대가 치름을 가리키는 연기법, 카르마(業) 법칙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거나 고칠 수 없는 법이다.

뿌린 만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 십자군전쟁의 명분은 '성전'

가장 일찍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시대 이후, 수천년 동안 지구촌에서 피를 뿌리는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50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온통 난리부침, 혼란 속에서 살아온 셈이다.

십자군전쟁의 발단은 수세기에 걸쳐 끊임

없이 침입하는 이슬람군대와 맞서기 위해 일어난 기독교 연합군의 항전이 그 시초이다.

14세기 이슬람 역사가 이븐 할둔은 “기독교는 지중해에 널판 하나 띄울 수 없다” 고 했을 만큼 이슬람군대는 강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7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기독교 세력보다 앞설 수 있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반도가 300년 이상 이슬람의 점령·지배 하에 있던, 1082년 십자군 원장대 엘시드에 의해 회교의 알아브람 궁전이 있는 발렌시아를 탈환하면서 이듬해 예루살렘을 되찾았으며, 그리고는 투르크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성채 안디옥이 1098년 십자군의 수중에 들어간다. 치열한 안디옥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슬람교도는 하나도 없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썩어가는 시신들의 냄새와 파리 떼로 가득한, 참혹상이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

## 위뻗시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

지난호(2017년 6월호, vol. 270)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뜻싸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8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뜻싸 부처님은 모든 어둠을 파괴하고, 얽힌 번뇌덩어리를 풀고, 불사의 비를 내려 많은 중생을 해탈로 이끈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지따위'라는 왕족이었는데, 큰 왕국을 버리고 출가한다. 그러자 뜻싸 부처님은 '위지따위'에게 '미래에 고타마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뜻싸 부처님은 9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세나숲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짜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9번째의 붓다인 위빠시불(vipassi-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중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중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21, vs.1-37) 의역]

\*(아래 주석 1번 참조)

## 1. 위빠시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꽃싸(phussa) 부처님에 이어서, 두 발 가진 생명 중에서 최고인 위빠시(vipassi)라 불리는 정등각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모든 무명(avijjā)을 파괴하고, 최고의 정등각을 얻은 후, 범륜(dhamma-cakka)을 굴리기 위하여 반두마 띠타운(banudhmati-pura)으로 가신다.

[vs. 3-6]\_범륜을 굴린 후, 지도자위빠시 부처님은 두 명의 상수제자 칸다와 뗏싸을 깨닫게 한다. [그때]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통찰을 얻게 된다. 나중에 다른 때에 한량없는 명성을 가진 위빠시 부처님이 거기에서 진리를 설하자 8만4천명이 두 번째 통찰을 얻게 된

다. 다시 8만4천명이 정등각자를 따라 출가한 후, 사원에 도달한다. 통찰력을 가진 이(위빠시 부처님)는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신다. 모든 측면에서 설하시는 법을 가까이서 들은 후, 그들도 또한 뛰어난 법에 나아가서 세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7-9]\_위대한 성자인 위빠시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들이 파괴되고(khīna-asāvā), 흠이 없으며,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6백 80만명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모임은 10만 명의 비구로 구성된다. 세 번째 모임은 8만 명의 비구로 구성된다. 거기의 비구모임 한 가운데에서 정등각자위빠시 부처님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빛이 난다. \*(아래 주석 2번 참조)

## 2. 수기

[vs. 10-12]\_그때 나(고따마 부처님)는 ‘아툴라(atula)라는 큰 힘을 가진 나가왕(nāgarājā)’ 이었는데, 공덕을 갖추고, 빛이 난다. 그때 많은 꼬띠(수천만)의 나가(nāga)들에 둘러싸여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세상의 최고 연장자(loka-jettha : 부처님)에게 나아간다. 정등각자이며, 세상의 지도자인 위빠시 부처님에게 다가간 후, 마니와 진주 같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갖가지 장식품으로 꾸민다. 그리고 나는 [그 부처님]을 초

대한 후, 법왕(부처님)에게 황금의자를 드린다.

[vs. 13-18] [그러자] 또한 그 [위뿃시부처님]은 상가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나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 “지금부터 91겁 후에 이어뿃라 나가왕는 붓다가 될 것이다. 여래(아뿃라)는 아름다운 까빨라와투를 떠난 후,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아자빨라나무(ajapāla-rukkha) 아래에 앉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유 - 쌀죽을 받아들고, 네란자라(nerañjara)로 다가간다. 그 승자(jina)는 네란자라강변에서 우유 - 쌀죽을 먹고, 잘 준비된 길을 따라 보리수 아래(bodhi-mūla)로 다가간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의 땅을 오른쪽으로 돈 후, 큰 명성을 가진 이(고따마)는 앓삿타나무 아래(assattha-mūla)에서 정등각을 얻는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 라 하고, 아버지는 쏫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따마(gotama)가 될 것이다.

[vs. 19-22] 아사와 번뇌(āsava)가 없고, 탐욕심이 제거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집중된 쩔리따(kolita : 대목건련)와 우빠뿃싸(upatissa : 사리뿃따)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ṅṅā)가 그

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사와 번뇌(āsava)가 없고, 탐욕심이 제거되고, 마음이 평화롭고, 집중된다. 그리고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삿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따라(uttarā)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따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뿃싸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함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위뿃시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위뿃시부처님]의 말씀을 농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4번 참조)

[vs. 23] 내(위지따위) = 미래의 고따마 부처

님이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 더  
기빠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  
한 결의를 더욱 더 다진다.

### 3. 위빿시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24-26] 위대한 성자이신 위빿시 부  
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반두마띠  
(bandhumati)이고, 반두마(bandhumā)  
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반두  
마띠(bandhumati)이다. 그는 8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난도(nando), 수난도  
(sunando), 시리마(sirimā)’ 라는 세 개의 뛰  
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4만3천명의 이름  
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  
은 수닷짜나(sudassanā)이고, 아들은 사마  
왓따칸다(samavattakkhandha)이다.

[vs. 27-28]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  
(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전차를 타고 출  
가한다. 그리고 그 승자(위빿시 부처님)는 8  
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세상의 지도자  
이고, 위대한 영웅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인  
위빿시 부처님은 범천의 권청이 있자 뛰어  
난 녹야원(migadāya)에서 범의 바퀴를 굴  
리신다.

[vs. 29-31] 위빿시 대성자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칸다(khaṇḍa)  
와 락사나마(tissanāma)이고, 시자는 아

소까(Asoka)이다. 그리고 최고 상수 비구  
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찬다(candā)와 찬  
다밧따(candamittā)이다. 그 세존이 깨달  
은 나무는 빠팔리(pāṭali)라고 불린다. 으  
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뿌납바수밧따  
(punabbasumitta)와 나가(nāga)이고, 으뜸  
가는 재가여성신자는 시리마(sirimā)와 윗  
따라(uttarā)이다.

[vs. 34-35] 많은 신과 인간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머지 범부들에게는 길과  
길 아닌 것을 말해준다. 그 [부처님은 빛을  
보여주고, 불사의 길을 말한 후, 불덩이처럼  
타올라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든다.

\*주석1 :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  
의 고향인 까벨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  
a-gaṇṭharambha-kathā]

\*주석2 :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  
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윗  
따라와 난다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양곳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  
타난다.

\*주석4 :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  
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  
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  
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 천년 이어온 문수보살의 주처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상원사는 신라시대 때부터 천년을 이어온 사찰로 깊은 산사의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선원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상원사는 월정사에서 오대산 주봉인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종턱에 자리 잡고 있다. 상원사 서쪽 비로봉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곳에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에 한곳인 오대산 적멸보궁이 있다. 적멸보궁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사찰 중 제일의 성지로 꼽힌다. 상원사는 월정사의 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더 오래되었으며 조선시대 때 세조가 원찰로 지정한 고찰이다. '용안수라 불리는 상원사 샘물은 물맛이 달달하기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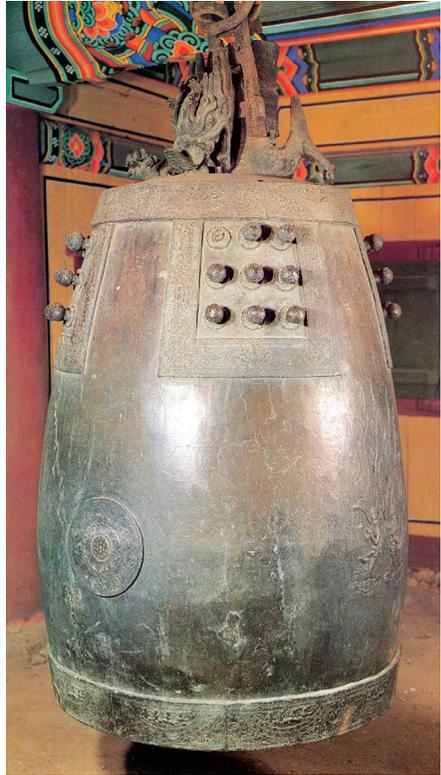


상원사는 오대산의 중대(中臺)에 있다. 신라 705년(성덕왕 4년)에 성덕왕이 창건했다. 처음 이름은 진여원(眞如院)이었다. 진여원은 보천(寶川)과 효명(孝明) 두 왕자가 창건하였다. 신문왕의 후계를 두고 나라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생들이 두 왕자들에게 왕위를 권유했을 때 보천태자는 한사코 돌아가려하지 않자 효명 태자가 중의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성덕왕(聖德王)이 된 효명이 다시 이 산을 방문하여 진여원을 창건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하여 봉안함으로써 이 절이 창건된 것이다. 그 뒤 1376년(우왕 2)에 영암이 중창했다.

1469년에 세조의 원찰이 되었고, 1904년에 선원을 개설하고 1907년에 수월화상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떨치게 되었다. 1946년 선원 뒤에 위치했던 조실(祖室)에서 시봉의 실화(失火)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1947년 당시 월정사의 주지가 선원을 복원하면서 금강산 마하연(摩訶衍)의 건물을 본떠서 중창하였다. 6·25전쟁 때는 이 절을 지키면서 수행 정진하던 당대의 고승 한암(漢巖)에 의해 월정사 등 다른 오대산 사찰과는 달리 전화를 면하였다고 한다.

상원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과 세조가 직접 보았다고 하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한 문수동자상, 상원사를 중창하기 위해 세조가 쓴 친필어첩인 중창권선문이 있다.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국보 제36호인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다. 이 동종은 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보다 45년이나 앞선 725년에 주조되었다고 한다.

높이 1,68m, 구경 91cm, 무게 3,300근으로 주악비천상의 문양이 우아하고 섬세할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종소리가 두 세 갈래로 다르게 울린다고 전해진다. 뛰어난 주조기술과 조각수법을 보여주는 우수한 종으로 원래 어느 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경상북도 안동의 ‘영가지(永嘉誌)’에 의



①국보 제221호 목조문수동자좌상 ②세조목욕 장면

하면 조선 초기에 안동 누문에 걸려 있던 것을 1469년 국명에 의해 상원사로 옮겼다고 한다. 용뉴 좌우에는 70자에 달하는 명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었는데 첫머리에 ‘개원 십삼년 을축 3월 8일 종성기지(開元十三年乙丑三月八日鍾聲記之)’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문수동자좌상은 1466년 만들어졌다. 국보 제221호로 높이가 98cm이다. 목조문수동자좌상은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64년 세조가 이곳에 행차했다가 문수보살을 배알한 후 괴질을 치료하고 그 가피에 크게 감격하여 화공을 불러 그때 만난 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목각상을 조각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이다.

세조가 목욕을 할 때 관대를 걸어두었던 곳이 지금의 관대걸이다. 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조각한 문수동자상은 제작연대가 정확해 불교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대우받고 있다.

보물 제140호인 상원사중창권선문은 세조 때의 혜각존자 신미가 1460년(세조 10) 상원사를 중창할 때 지은 글이다. 신미가 학열·학조 등과 함께 세조의 복을 빌기 위하여 상원사를 중창하자, 세조는 재물과 철물 등을 신미에게 보냈는데, 이 과정과 중창 취지를 적은 글이다. 이때 보낸 어첩도 함께



①적멸보궁 ②부처님 진신사리함

첩장으로 되어 있다. 1책은 한문으로 쓰고, 1책은 한글로 번역하여 썼다. 한글로 작성된 사본은 한글서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중창권선문은 월정사에 소장되어 있다.

상원사 법당 앞에 있는 고양이 석상도 세조와 관련이 있다. 하루는 세조가 기도하러 상원사 법당에 들어가려 하자 고양이가 나타나 세조의 옷소매를 물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괴이하게 여긴 세조는 법당 안팎을 살살이 뒤진 끝에 불상을 모신 탁자 밑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자객을 찾아냈다.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세조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상원사 고양이를 잘 기르라는 뜻에서 묘전(猫田)을 하사했다.

현존 당우로는 선원인 청량선원, 승당인 소림초당, 종각인 동정각, 영산전 등이 있다. 선원을 청량선원(淸涼禪院)이라고 한 것은 오대산을 일명 청량산(淸涼山)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청량선원 안에는 석가 여래좌상과 문수보살상, 목각문수동자상, 3구의 소형 동자상, 서대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목각의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이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문수동자상은 상원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주처(住處)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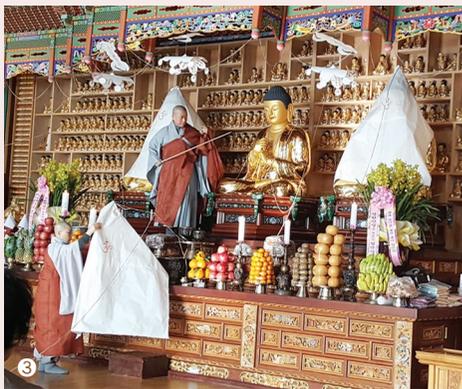
상원사는 월정사 가는 길과 같다.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갈아 탄 뒤 진부나들목에서 빠져나와 1.5km쯤 가다 좌회전해서 가우삼거리로 간다. 가우삼거리에서 직진하다 월정삼거리에서 또 다시 좌회전해 병안삼거리까지 간다. 병안삼거리에서 직진하다 월정사를 거쳐 8km쯤 더 올라 가면 상원사가 나온다.



1

## 대적광전 삼신불 점안법회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짓날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봉안한 삼신불(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20년에 걸친 법왕사 대적불사를 완성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점안 의식은 봉안한 불상의 눈에 정기를 불어넣어 일개 조각품에 불과한 불상을 비로소 참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과정입니다. 이날 법회는 흥법 큰스님께서 직접 의식을 집전하여 더욱 여법한 법회가 되었습니다.



3



2



4

- 1 삼신불 점안법회를 알리는 오색실을 복지관에 걸어놓고 준비하는 모습
- 2 대적광전에 안치한 삼신불의 점안에 앞서 고깔을 씌우고 각 불상의 명호를 게시한 모습
- 3 마침내 고깔을 벗겨내고 점안을 준비하는 모습
- 4 점안법회에 동참한 2백여 불자들이 관일 큰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5

- 5 불상의 눈에 붓으로 점을 찍어 정기를 불어넣는 점안의식을 하는 흥법스님
- 6 주지 실상스님께서 법왕사 신행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7 인사말을 하는 정안식 전 거사님 회장
- 8 점안법회를 마치고 펼쳐진 대구타악연구원 공연단의 난타 공연이 펼쳐졌다.



6



7



8

# 분명 새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해오름요양원 강선옥 원장



2017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식상한 주제인 ‘2017년을 보내면서’ 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이었다’ 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매년 아무리 ‘다사다난’ 했다고 해도 2017년 정유년과 같이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수정권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공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촛불시위’ 로 인하여 보수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적 성향인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으며, 처음으로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에서,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핵’ 을 사이에 둔 위험한 줄다리기 속에서 ‘사드’ 라는 북병으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최악인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이 교차됩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고 그 누구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수 같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나 않았는지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새해가 되면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와 낙심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희망을 반복하면서 다시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특히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수명이 백이십세까지 늘어난다고 과학계와 의학계서는 난리가 났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노후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60세에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면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랜 시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미리 대비하고 제도화하여 ‘제2직업 이모작’이라고 하면서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지도, 제도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점차 어른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역시 2018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는 가난한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전성기’ 즉 ‘이모작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열정과 희망으로 새로운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생활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유익하게 사회와 가정에 이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지만 준비만 잘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제 과거 낡은 관념을 버리고 희망찬 새 시대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7 정유년 빨간 닭띠 해, 사람들이 희망차고 긍정적 기대를 걸었던 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는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서 치르는 일이지만 언제나 이때쯤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분주하며 예사롭지 못

합니다. 세월의 빠름에 흠칫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무사히 한 해를 보냈음에 아쉬움과 후회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간이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불평과 탄식보다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휘이~ 휘이 바람에 날려 보내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실낱 같으나마 희망을 가슴에 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밤이 가면 아침은 오고 태양은 변함없이 동녘 하늘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새해는 분명 올해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소식

## 영가를 위한 단집 연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단집 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단집 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송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의식을 위한 법구로 꽃상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단집 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4층 신장탱화 봉안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장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장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기는 동참금은 1인 10만원입니다.

## 무술년 정초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 (양력 2월 26일) 여수 향일암 선상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당일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새해 첫 방생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의식용 번 불사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각종 의식에 사용하는 다양한 번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사에는 오방번, 용왕(방생)번, 원왕생번, 시왕번 등 4종으로 각종 의식에 맞게 내걸어 의식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의식을 더욱 여법하게 하는 법구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무술년 새해 인등 접수 중



법왕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밝혀온 인등을 새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신인등, 본당인등, 4층 대적광전 인등을 밝히고 싶은 분은 종무소로 접수하시고 현재 등록하고 계신 불자들은 올해 무술년에도 계속 밝힐지 여부를 종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적광전 삼신불 점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짓날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봉안한 삼신불(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20년에 걸친 법왕사 대적불사를 완성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점안의식은 봉안한 불상의 눈에 정기를 불어넣어 일개 조각품에 불과한 불상을 비로소 참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과정입니다. 이날 법회는 흥법 큰스

님께서 직접 의식을 집전하여 더욱 여법한 법회가 되었습니다.

## 삼신불 좌우 협시 문수·보현보살 봉안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신불 점안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불단의 마지막 불사로 좌우 협시보살로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실천제일 보현보살상을 봉안합니다. 삼신불에 이어 보살상까지 봉안하면 법왕사 대적광전은 완벽한 도량으로 거듭나며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스님 세분 주지스님 예방



베트남 본국에서 방한한 스님 세 분이 지난해 12월 25일 법왕사를 방문하여 실상 주지스님을 예방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매월 1회 1박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정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베트남 출신 다



하였습니다. 불자들은 늘 이 카드를 소지하고 삼신불의 위신력의 가피를 입고 '마음 다스리는 글'을 읽음으로써 더욱 깊은 신행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무술년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2일 무술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삼재풀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올해 삼재는 범띠, 말띠, 개띠가 해당되는데 기도 동참자는 1인 쌀 3되3홀, 동전 나이 수대로, 묵은 속옷 1벌을 준비하면 되며 동참금은 1인 3만원입니다. 이날 저녁 7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모두 불태워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KT 대구 진여회 송년법회 봉행



KT 대구 진여회(회장 신희준) 송년법회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0시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유년 신행생활을 돌아보

고 무술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날 법회에는 주지 실상스님의 법문을 듣고 108배 정진기도를 하였습니다.

### 동지 불공기도 특별 난타공연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7일간 동지기도를 회향하면서 대구타악연구원(원장 김진규) 공연단의 난타 공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삼신불 점안법회도 겸한 날이어서 축하공연의 의미도 함께 하였습니다. 대구타악연구원은 난타, 모듬북, 대북, 퓨전타악 등 다양한 연주곡을 개발하고 공연 및 강의를 하는 단체로 타악그룹 '예타'는 여성 멤버가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악모듬북, 가요난타, 부채난타, 퓨전난타, 대북 공연 등을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 부처님 성도재일 1인 1등 밝히기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24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1인1등 커기 특별법회로 봉행합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 새로 오신 법우님

이정희 김은희 채희두 정종표 이강석  
이규화 김대현 김명철

## 사보 도움 주신 분

이범일 20부 신재천 100부 관일스님 100부  
이재경 20부 배선아 50부 이광수(람림불교) 50부  
김경숙 20부 진여회 300부 최용식 20부  
베트남 스님 5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 공양 올리신 분

### ◎ 동지 공양물 올리신 분

강정선 이기창 최옥분 안주선 정연국  
류윤만 성 윤 박경란 이영석 김성훈  
하경순 박진원 신지원 장미아 백장자  
송홍점 박종한 김세활 김양순 박계옥  
김인수 심동원 조태금 윤다경 공인수  
이광순 최홍규 심보현 관음회 김도심화  
사공순화 구실상화 불화반 일동  
세광하이테크 이정상·전옥남(과일 일체, 팔 공양)

###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봉률

###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박근수 박재환

### ◎ 삼신불 점안법회 공양물 올리신 분

정안식(화분) 금오불상(화환) 김호연(떡공양)  
전재술(떡공양) 권오성(공양미)

### ◎ 물품 보시하신 분

동광개발 박동광(의자, 냉장고) 장금혁(병풍)  
다산미디어(삼신불카드) 김도심화(가정보감)  
대만불교(양초) 김순태(버섯) 김민지(버섯)  
박경원(참기름)

### ◎ 공양미 올리신 분

이경준 심보현 이장수 김현정 김지택  
김주택 노인장수 노인계식

### ◎ 떡공양 올리신 분

이승민 박상우 이경준 양지영 김봉원  
정효교 이세정 김세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 불사 올리신 분

### ◎ CMS 불사하신 분(~12/15)

강유주 1만원 류유행 1.5만원 장미아 4천원  
강창현 2만원 서필희 1만원 전성복 1만원  
강춘희 2만원 성점순 1만원 전재필 5천원  
김관용 5천원 손동림 5천원 전태일 5만원  
김명선 2.5만원 손향숙 2만원 정순희 2만원  
김명숙 1.5만원 송순분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성미 5천원 송윤선 7만원 정옥선 1만원  
김성미 5천원 신인숙 5천원 정재순 3만원  
김성자 1만원 신정옥 4.5만원 조희선 2만원  
김수라 3만원 심규암 1.8만원 최승임 1만원  
김연자 1만원 심영선 1.5만원 최진석 5천원  
김옥자 1만원 오재대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정옥 1만원 오창혁 1만원 홍경숙 1만원  
김제순 1만원 이숙희 2만원 황국희 2.5만원  
김현숙 8천원 이호진 1만원 황덕선 5천원  
나형진 2만원 장명희 5천원

### ◎ 담집연 불사하신 분

김기석 황보일 김재순 최종길 최용석  
김은영 최성윤 최은비 최왕석 류수민  
최교민 이승재 백순도 이옥남 김중환  
이영란 정선규 광귀여자 백대행심  
정대법신 노인계식 신강분자

### ◎ 번 불사하신 분

최영근 권숙자 유광식 최은진 차재민  
최은정

◎ 삼신번 불사하신 분

석가모니불(화신) 김가수 김상희 강명진  
 김호신 강정민 이두이  
 사공순옥  
 비로자나불(법신) 권기욱 최남윤 권민서  
 권민교 최남구 최남익  
 노사나불(보신) 박동근 황미선 박준범  
 박준용 이효경

◎ 삼신불 불명패 불사하신 분

비로자나불 김세활 최정옥 김은주 김민제  
 석가모니불 오진환 김정순 오창건 오민정  
 오정임 김은주 김완주  
 노사나불 김주석 장미아  
 보현보살 배해동 박분남 배수현 배수진  
 정채운 장원업 정우득 장혜린  
 문수보살 이현주 박영희 이상원 이동윤

◎ 개금불사하신 분

김태영 박정애 권세한 임인한 김경자  
 임현경 임재현 채상백 채희재

◎ 금란가사 불사하신 분

류윤만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116 최양이 120 권춘자 121 김유진 122 김동훈  
 123 김수중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70 卍박옥기 3571 서주석 3572 서준영  
 3573 서예지 3574 박소영 3575 김재은  
 3576 김재유

◎ 대적광전 인등 올린 분

71 남지원 433 정종표 434 정철우

◎ 본당인등 올린 분

371 최규영 372 홍수경

◎ 인로왕번 불사하신 분

김임태 김숙 김대영 김정영 김보영  
 박효천 김민섭 이동학 채무희 이순비  
 이복순 이미경 이영희 이호형 신재호  
 김현주 신현태 신현욱 신현중 권정애  
 최홍규 이영아 최영곤 권숙자 유광식  
 최은진 차재민 최은정 지장희 일동(지장번)

◎ 신중탱화 불사하신 분

백대행심 신명균 구실상화 신승훈 신현수  
 신창희 신나현 박해진 박종성 나은정  
 백월순 박경원 박수정 박도현 김기수  
 사공순옥

◎ 일년등 올린 분

37 이재문 38 함지훈 39 박정수 40 김우동  
 41 김의환 42 정연국 43 정연직 44 정연목  
 45 정연석 46 김유창 47 이승엽 48 박경훈  
 49 신현섭 50 신현욱 51 이강복 52 김이규  
 53 박남희 54 정종표 55 이창식 56 김상수  
 57 김기석 58 김수식 59 백장자 60 장관덕  
 61 장승환 62 이병순 63 이용웅 64 배재호  
 65 최임한 66 안준영 67 이상태 68 김만기  
 69 정여근 70 김승우 71 류윤만 72 이태정  
 73 이수희 74 석동호 75 석명수 76 석명수  
 77 이우영 78 진상렬 79 박종욱 80 강현주  
 81 김대근 82 백정열 83 김정석 84 장기란  
 85 심규암 86 이재영 87 흥대환 88 김말순  
 89 박태조 90 장원식 91 이구방 92 김순태  
 93 이우호 94 권병기 95 최재승 96 이재욱  
 97 서태희 98 신영일 99 김일근 100 정제규  
 101 신주자 102 김경미 103 이순남 104 손정규  
 105 문용욱 106 신석봉 107 구영수 108 홍승규  
 109 박인두 110 여택동 111 여영동 112 이광순  
 113 김인수 114 김영수 115 조분기 116 심동섭  
 117 박호기 118 조춘권 119 조원일 120 조상혁  
 121 최중수 122 이태희 123 정재훈 124 여희용  
 126 임재오 127 배해동 128 김성규 129 김대호  
 130 김희동 131 홍재호

### ◎ 영가등 올리신 분

- 1. 이현진 2,3,5,6. 정연국 7. 정연욱 8. 이경생
- 9. 김이규 10. 박남희 11. 오창혁 12. 오창혁
- 13. 김가수 14. 공세표 15. 이명철 16. 신상훈
- 17. 박인규 18. 여택동 19. 김경숙 20. 김경숙

###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 1. 여희용

###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흥지상 영가의 막재가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성석금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亡진영덕 영가의 초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순흥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종삼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재식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정달수 영가의 기제사가 1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亡서상수 영가의 초재가 1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춘기 영가의 초재가 1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亡김광정 영가의 초재가 1월 2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 해오름 요양원 12월 소식



## 김장하는 날

해오름 요양원과 법왕사에서 3일간에 걸쳐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김장을 하였습니다. 첫날에 다듬고 절이고 둘째 날 깨끗하게 씻어서 셋째 날 양념을 버무려 맛있는 김치가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자연과학교 학생들과 행복한 교육이야기 봉사단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겨울식량인 김치가 아주 맛나게 담가졌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 최단장 공연

최단장 공연팀의 공연이 있던 날 어르신들은 2층 생활실로 모두 모이셔서 공연을 즐기셨습니다. 이 날은 돌아가며 어르신들의 노래를 한곡씩 부르시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중간중간 봉사자분들과 선생님들도 노래를 부르시며 흥을 돋구셨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어르신들과 보내주신 봉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 힘뇌체조 교육 참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힘뇌체조 교육에 본 요양원 서동남 작업치료사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하면 좋은 어르신 체조, 두뇌운동 등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요양원의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보호자간담회&송년파티

2017년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및 송년파티를 12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지하 강당에서 기타공연과 색소폰 공연 등 멋진 공연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말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본 요양원을 찾아 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수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봉사단(아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1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자 1만원	류훈재(지일) 5천원
강선옥 5만원	김숙희 1만원	문성섭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순덕 1만원	박경관 1만원
강영도 4만원	김순태 1만원	박경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양순 1만원	박귀분 1만원
고재옥 2만원	김영호 1만원	박남희 3만원
구정대 2만원	김영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상용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성숙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우영 1만원	박성용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원철 3만원	박성은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의목 1만원	박수진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정규 5천원	박순남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정숙 5천원	박순영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원태 1.5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순 3만원	박인철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임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자 5천원	박종환 1만원
김대현 5천원	김주현 1만원	박치민 5천원
김만기 5천원	김진성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명숙 1만원	김진현 1만원	반룡사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진현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미자 3만원	김진현 2만원	배하수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5만원	사공관 2만원
김미희 1만원	남기웅 1만원	서동남 1만원
김민주 1만원	노귀자 1만원	서찬수 1만원
김봉숙 5천원	노수정 1만원	성기옥 1만원
김성의 1만원	도순자 1만원	성인자 1만원
김수곤 5천원	도화순 5천원	손수연 1만원
김수라 1만원	류윤만 1만원	송민경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숙자 1만원
시명숙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연이 5천원
신돈식 1만원	이인순 5천원	정옥선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옥수 5천원
신중호 5천원	이재봉 5천원	정인순 5천원
신홍준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태교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혜숙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정숙 1만원	조규인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정연 5천원	조성자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영석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자 1만원	조영주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조정자 5천원
양봉률 1만원	이정희 3만원	진봉희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채옥연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종희 5천원	최분규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준우 5천원	최승임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창수 1만원	최영희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채원 1만원	최윤희 5천원
옹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최창숙 5천원
우정미 1만원	이호동 5천원	한규매 1만원
유경희 1만원	이효조 1만원	한희록 1만원
유명옥 1만원	임상덕 1만원	허유미 5천원
이경자 1만원	장성규 5천원	홍기학 1만원
이남희 1만원	장수정 1만원	홍애분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시원 1만원	황미선 2만원
이명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황영희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찬규 5천원	황지영 1만원
이병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황학영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명선 2만원	
이석규 10만원	정무시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미화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총합계 : 2,090,000원

###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10,000원

###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윤종수 이수현

### ◎ 지출내역

식재료 구입비	: 316,030원
간식 구입비	: 241,600원
경관식 구입비	: 587,4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60,000원
필요물품 구입비	: 7,500원
후원금 반환	: 950,000원

총지출 : 2,251,03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통, 카스타드 5통

김용희 어르신 보호자 : 사과 1봉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문창욱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김경순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손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1박스

김일순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박스, 카스타드 2통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카스타드 4통

서봉득 어르신 보호자 : 단감 1박스

허옥순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추가네 옛날짬뽕 : 짬뽕 3박스

무하스님 : 떡 1상자, 굴 1박스

경일여고 학생들 : 굴 2박스

라인댄스 봉사자들 : 굴 1박스

김원기 어르신 보호자 : 기저귀용품 40만원

##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 해오름 사람들

### ● 직원 동정

퇴직 김미희·정옥선 요양보호사

2년여 어르신 케어에 애써주신 요양보호사님  
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  
원합니다.

##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영가를 위한 달집연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달  
집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달집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송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법구로 꽃상  
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달집연 속  
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달집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무술년 정초 향일암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25일) 여수 향일암 선상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당일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새해 첫 방생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5만원
- 방생물 : 바다거북 1마리 2만원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 발 : 2월 25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회향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22일 무술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무술년 한 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3월 2일 오후 7~9시
-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광장
- 해당띠 | 범, 개, 말(날삼재)
- 준비물 | 쌀 3되 3홉, 나이수만큼 동전, 속옷
- 동참금 | 1인 3만원



# 법왕사 오시는 길

## 법왕사 버스노선 안내

- 240, 304, 405, 413, 449, 가창2번 버스가 송원맨션앞과 송현맨션 건너편 정류장까지 운행합니다.
-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송현아파트를 지나 징검다리를 건너 오시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 신천대로 → 신천좌안도로 → 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 → 상동교 → 수성못 오거리 → 용두교 → 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장애인복지관을 통과하여 법왕사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